

자산관리는 입구관리보다 출구관리가 중요



"제 나이가 60인데요, 그 동안 아들 교육시키고 생활비 쓰다 보니까 저축해 놓은 돈이 5,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돈으로 재테크를 해서 퇴직 후30~40년 동안 살아갈 자금을 만들어볼수 있을까요?"

투자교육 교육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의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5,000만원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하면 30~40년 동안의 생활비를 벌 수 있겠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의 예를 든 사람의 경우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다. 지난해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구당 총 보유자산액은 5억 4000만원 정도이고, 여기에서 평균 부채액 6000만원을 뺀 순자산은 4억 8000만원 정도였다. 50대 후반에 4억 8000만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럭저럭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4억 8000만원 중 거주용 부동산의 평가액이 4억 6000만원 정도였다. 부동산평가액을 뺀 금융자산은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2,000만원으로 어떻게 노후 30~40년의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겠는가? 결국 집을 팔아서 살아야 하는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집을 팔려고 내놓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집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가정이 이런 형편인데 금융기관에서는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려면 10억 원은 있어야 한다. 최소한 7억 원은 필요하다"는 식의 자료를 발표하고, 언론에서는 이를 인용해 보도하곤 한다. 물론 미래를 미리 미리 준비하라는 뜻이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너무나 부담이 크고 먼 이야기들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단기간에 돈을 불리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런 사정 탓인지 우리사회에 부동산 기획사기 사건 등이 횡행하고, 서점에 가보면 '재산을 0배로 불리는 법', 'X억원 만들기'등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재테크 서적들이 범람하고 있다.

서울에서 4년 동안 특파원으로 일하다가 귀국한 한 일본 언론인은 우리 사회의 이런 상황을 비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즉 입구(入口)관리에는 참으로 열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벌어들인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그 환경에 맞추어 살 것인가, 그리고 부자가 됐을 때는 그 돈을 어떻게 아름답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출구(出口)관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게 아닌가?"

이 말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불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른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볼 때 그의 말이 그다지 틀린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례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도 많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해나가는가? 우선 형편에 맞춰 살아갈 방법을 궁리한다.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일이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생활비를 벌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다.

1975년 여름 필자는 일본증권업계에 파견되어 업무연수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 당시 일본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8%대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비중(11%)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다. 그런데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이미 체면을 버리고 일을 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루는 증권 보관 기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관 시설을 견학하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70세는 되었을 것 같은 노인 100여 명 정도가 둘러앉아 증권을 세거나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을 했을까 궁금해서 안내하는 분에게 물었더니 공무원, 기업체 간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던 분들이라고 했다. 받는 보수도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6,000~7,000원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 당시 필자가 머물고 있던 곳은 비즈니스호텔이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 때 호텔에 돌아가 보면, 일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낮 시간에 프런트데스크에서 근무하던 젊은 여성들은 퇴근하고 나이 든 할아버지들이 밤 당번으로 교대해 근무하고 있었다.

두 가지 광경을 목격한 것만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때 생각한 것은 정년 후에도 일을 하려면, 화려하고 귀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에게 양보하고, 어찌 보면 저런 허드렛일에 가까운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가 2009년에 수도권 내 55 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퇴직자들의 고용정년은 평균 56세로 그들이 기대했던 연령보다 7년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 때까지 마련된 노후자금이 실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자금 규모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중 절반 이상은 71세 정도까지는 수입이 따르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 했다.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36년 전 일본의 정년퇴직자들보다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나이 든 사람이 일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지만 하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려운 사회분위기였던 것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1~2년전부터 우리사회도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일이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셋 은퇴교육센터 발간 「은퇴와 투자 2010년 9월호」에는 남이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71세의 전직 교장선생님이 소개되었다. 남이섬에는 하루 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드나드는데, 이들이 버린 쓰레기를 4명의 청소부가 치운다고 한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여 월 100만원 정도씩을 받는다고 한다. 교장에 비해 청소부가 하찮아 보이는 직업일지 모르지만, 이 분이 느끼는 자부심은 똑같다고 한다. 「일하는 즐거움」 과 「환경을 가꾸는 보람」 속에 일터를 향하는 자신은 행복한 청소부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분 뿐 아니고 체면을 버리고 일을 하는 사례는 주위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지하철 택배를 하고 있는 전직 무역회사 사장도 있다. 리서치회사의 전문 조사요원으로 일하는 대기업 간부 출신도 있다.

똑같이 몇억원의 노후자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슨 일이든 규칙적으로 일을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과, 놀면서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하는 모습이 크게 다르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비교적 흔들림이 없다. 반면에 놀면서 관리하는 사람은 쓸데 없이 욕심을 내거나 쓸데 없이 소심해 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허드렛일을 해서라도 한달에 50만원의 수입을 얻는다면, 그 효과는 2억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말이 쉽지, 2억원의 정기예금을 모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런데,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이 그 2억원의 정기예금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인생 100세 시대에는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만약의 경우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부부가 같이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사는 것이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